

욥기

THE BOOK OF JOB

by Dr. Samuel C. Gipp, Th.D. 지음 / 양성희 옮김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THE BOOK OF JOB

By Dr. Samuel C. Gipp, Th. D.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4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옉기

지 은 이 | Dr. Samuel C. Gipp, Th. D.

옹 긴 이 | 양성희

펴 낸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7. 05. 30.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편집디자인 | 장한디엔피

ISBN | 978-89-89741-87-9

정가 1,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역자의 약력

역자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장로교인 어머니의 인도로 어린시절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남들이 보기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였다.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와 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기독교 교육을 부전공 하던 첫 대학시절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본인의 무지로 인한 것이라고 자책하며, 하나님께 성경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곤 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밥존스 대학교(Bob Jones University)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던 중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번개된 성경을 버리고나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후 당시 출석하였던 독립침례교회인 커네스티 제일 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Conestee)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교도가 되었다. Bob Jones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한 후 푸에르토 리코의 갈보리 침례 크리스천학교(Calvary Baptist Christian School)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의정부에 위치한 기독교계 외국인 학교인 국제 크리스천학교(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역자의 말

Samuel Gipp (사무엘 깍) 박사님은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후 그의 사역으로 인해 저에게 바른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에 지

대한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변개된 성경의 위험성을 너무나 알기 쉽게 설명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빛을 진 성도로서 사실 사무엘 김 박사님의 욥기 설교 번역을 의뢰받았을 때, 저는 정말 펄 뜻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설교집 번역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서 5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고, 차는 그날로 폐차를 시켰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청상과부가 될 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행히 남편을 지켜주셨습니다. 사고 다음날, 차가 없어진 우리를 위해 한 형제님은 저희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이른 아침 저희를 데리러 와 주었고, 바로 며칠 후 교회의 한 형제 자매 부부가 저희에게 자신들이 쓰는 너무나 좋은 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욥이 처음에는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해주신 것처럼 저희 부부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심한 불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오는 길에 생긴 일이라, 사고 소식을 듣는 순간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지켜주셨다는 감사함보다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남편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걸까?’하는 의문과, 혼자 남겨질 수 있었다는 두려움에 저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채로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

뿐 일상 가운데 그런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 불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즐겁게 섬기던 교회에서의 일도 점점 힘들어지고, 마음 속으로 이것 저것 다 트집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어찌 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필 제가 번역을 마무리 해야하는 부분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 인내한 내용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 이유를 목회자나 다른 성도 탓을 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화가 나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사무엘 김 박사님의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 앞에서 제 귀에 꽂아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 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참담히 무너져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시기에 그런 불평 가득한 마음일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박사님의 설교 중 정확히 그 부분의 번역을 검토할 것이라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같이 그분에게 화가 나 있는 투덜이를 자신의 미리 아심을 통해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것 입니다.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고 작은 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가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영균 목사님과 기록된 설교를 통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무엘 김 박사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역자의 주: 본 책자는 사무엘킵 박사의 설교를 녹음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문어체보다는 다소 구어체적인 형식으로 쓰여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의 특성 상 의미전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구어적인 표현이나 농담은 단어 대 단어가 아닌, 의미전달식 번역을 하였습니다.

서문

|||||||

여러분, 성경을 펼쳐 욥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 특히 침례교도들은 욥기를 읽으며 근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편두통에, 아이들에, 시어머니, 혹은 장모님으로 인해 근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는 욥기를 읽으며, ‘세상에, 내 상황이 정말 욥의 이야기와 같잖아? 오직 욥 그사람만이 내가 오늘 아침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군’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욥기에 대해 나누며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욥기에 대해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못된 인식이라고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우리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강단에 서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책들의 중심이 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창세기의 중심이 되시며, 에스겔, 이사야, 출애굽기, 소대언서, 또는 신약의 어떤 책에 계도 중심이 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책의 주인공이라 믿습니다, **딱 한 책만 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욥**이 욥기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이 욥기가 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욥에게 나아가 욥과 함께 읍니다. 저는 오늘 욥기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욥기가 욥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책의 주인공이 되심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목적

|||||||

이제 욥기 41장을 살펴보면, 저는 **왜** 욥기가 존재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욥기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은 ‘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욥의 사건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리하셨을까?’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타이어가 펑크가났을 때 ‘왜?’ 라고 되묻는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왜 그러셨지?’ 저는 타이어가 펑크난 사람 중 누구에게서도 사탄에게 화가 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차를 박차고 나가 ‘이런 못된 사탄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말고요, 도로 한 가운데에서 깊이 패인 구덩이를 만나기 전 까진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과 도로교통 당국을 동시에 원망합니다.

욥기 41장을 봅시다. 41장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욥기를 세상에 나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욥이 그러한 일들을 겪었어야 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 들 중 하나입니다. 인종차별적인 색채를 버리고 머리 속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하얀 팔과 검은 팔이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시지만 어쩐일인지 사탄과 힘겹게 싸워서 이기실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사탄을 다루는데 어떤 작은 문제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히 사탄을 지구에서 혹 불어 날려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채기조차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욥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욥기는 하나

님께서 사탄 위에 군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 마이크 타이슨이 좋은 권투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싸울 때, 그들은 일어나서 “내가 상대선수를 4라운드에 녹다운 시킬거야!” 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상대편 선수는 “말도 안되는 소리! 내가 4라운드에 녹다운 될 일은 없을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를 먼저 1라운드에 녹다운 시킬 예정이거든” 라고 말 하겠지요. 제가 만약에 챔피언에게 도전한다고 가정 해 봅시다. 기자들이 그 챔피언을 인터뷰 했을 때 그가, “도전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합 전 40일 밤낮동안 저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몸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도전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도 사탄과 마주하여 시험을 받으셨을 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사탄이 그를 넘어뜨릴 기회는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시어 사탄을 녹다운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탄 위에 갖고 계신 권능입니다. 욥기 41장은 하나님께서 사탄 뒤에 군림하시며 가지고 계신 놀라운 권능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살펴봅시다. **“네가 낚시 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네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1절)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낚시하러 가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과

낙싯배, 그리고 푸른 물고기 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아, 미끼를 물어라!”하시며 기다리셨다는 것 입니다. 이것이 욱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낙으러 가셔서 두 번이나 그를 잡게 됩니다.

“네가 그의 코에 낙시 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켈 수 있겠느냐?”(2절) 이제, 이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어느 누구라도 코가 뚫렸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탄의 경우는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는 사탄과 씨름하여 코뚜레를 끼워놓을 수 있노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황소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황소가 농장에서 가장 못된 동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는 다른 세 마리의 황소를 죽였습니다. 그는 어느날 그 사나운 소를 몰고 가고있었는데, 그 소는 초원에 있던 또 다른 소를 보고 문자 그대로 울타리를 넘어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파당! 결국 초원에 있던 소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황소는 거기 있던 두 세명의 일꾼들도 죽였습니다. 못된 소의 주인은 “누구도 이 못된 소를 감당하지 못하니 언젠가 이놈의 코에 코뚜레를 끼워야겠군” 하고 말했습니다. 소의 주인은 코뚜레를 끼우기 전까지 그 소는 자신이 본 소 중에 가장 고약한 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코뚜레를 채워 놓은 소는 이전에 아무리 못된 소였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가자고 하는대로 순순히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탄에게 누가 주권자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네게 많은 간구를 하겠느냐? 그가 네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3절)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옆치락 뒤치락 하는 몸싸움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둘 중 하나는 바닥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면 윗쪽에 있는 친구에게 자신이 친구임을 말하며 설득을 하려 할 것입니다. “이봐, 우리가 왜 이려고 있지? 왜 이려고 있는걸까?” 솔직히,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싸움이 기억납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 친구와 저는 서로 죽일 듯 한 기세였습니다. 제가 우위를 점령하고 친구를 치려고 하자, “쌈, 쌈, 우린 친구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막 치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탄이 나에게 공손히 말하고 나에게 일으켜달라고 부탁할 때까지 때려눕혀 주겠어”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사탄에게 창피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 깨달아 지십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사탄을 압도해 우리를 향해 좋은 말을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된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므로 기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자였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사탄송배자의 집 문을 두드릴 때에, 그들은 ‘저는 사탄송배자입니다’하고 말하지 않는단다. 그들은 사악하게 속삭이며 ‘나는 사탄송배자야, 나는 사탄을 숭배해’ 하고 말한다” 라고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

때 저는 청소년들에게 그럴땐 그들에게 “유감이네요, 그쪽에서 패배자를 골라서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당신이 숭배하는 신을 때려 눕혔거든요. 사실, 저는 당신의 신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하고 말하라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제 두 딸들이 우연히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 한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쪽으로 다가왔고 영화 유령의 집에 나오는 빈센트 프라이스와 아담스 패밀리에 나오는 러치의 중간쯤으로 생겼습니다. 이 소심한 소녀들은 그가 “나는 사탄을 숭배해” 라고 말하는 걸 듣기 직전까지는 죽을만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제 딸들은 웃음이 만연하여 “에잇, 뭐야! 그런 패배자를 숭배한다니 안됐네요.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신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이봐, 이 문을 닫아야겠군.” 하며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들을 좋아합니다.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 제 5절을 보십시오. “네가 새와 놀 듯 그와 놀겠느냐? 혹은 네가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를 묶겠느냐?” 저희 교회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리를 다쳐서 그의 아내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새를 사 주었습니다. 새는 하얀색이었는데 작은 앵무새보다는 큰 것 이었습니다. 그 새는 소농새(앵무새의 일종)도, 무엇도 아니라 침례교인 새 였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새의

주인인 그 남자는 새디스트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새가 그를 화나게 하면, 그는 새장으로 가서 “닥쳐, 이 새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들어올려 흔드는 상황이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 새는 깃털도 빠지고, 날개를 펴득거리며 거꾸로 매달려있어야 하며, 가끔씩 주인이 문을 열어, “닥쳐, 이 새야!” 하고 말하는 상황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이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새가 주인을 물겠군.” 주인이 그의 손가락을 새장에 넣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화기 안테나를 물었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그걸로 그를 질질 끌고 갈수가 있겠습니까?, 아님 엎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에게 있어 하나님의 권능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도 하나님에 대해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새 다루듯이 하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마귀에게 어떤 일을 할지 아느냐? 마귀를 괴롭히러 가자. 나는 그의 눈에 막대기를 꽂아버릴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욕기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욕이 바로 그 나뭇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전

|||||||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느날 마귀는 자신을 과시하는 실수를 범했고, 하나님은 “나는 그의 눈에 막대기 꽂아버릴 것 같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죠?” 하고 묻는다면 답은 그가 **그리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러분에게 그리 하신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압도될 것이고, 그것은 재미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마귀에게 그리하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여러분은 8절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너무 선하게 살아서 마귀가 하나님에게로 달려가 여러분에 대해 참소를 하고, 하나님이 욥과 같이 여러분을 시험하실까봐 염려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을 꺼내셨습니다!**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기 전까지 입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너무 거룩하게 살다가 마귀가 ‘내가 욥에게 그랬던 것 처럼 저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어야지’하고 생각할 지 모른다는 비밀스런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실 욥을 대화에 끌어들인 적이 없습니다. 이제, 6, 7, 8 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의 눈에 막대기를 꽂으실 것 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마귀의 눈에 막대기를 꽂을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욥이 그 막대기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미끼”를 던지시는 것 입니다.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끼가 어떤 것 인지 아실 것 입니다. 미끼를 보십시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8절)

하나님께서서는 ‘미끼를 무는 것’이 어떤 것 인지 알고 계셨으며, 9절에 미끼를 무는 사탄이 보여집니다.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9절) 보십시오! 미끼를 물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10절) 이제 11절에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사탄의 도전의 요점은 “당신께서 그가 가진 것을 거두신다면, 그가 당신의 면전에 대고 저주를 할 것입니다” 라는 것 입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계실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낙타도, 황소도, 양

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거기에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처럼 보입니다. 자녀 열 명이 모두 한 집에 있던 상황에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죽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서 욥이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제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말입니다.

두 번째 도전

!!!!!!!!!!!!!!!!!!!!!!!!!!!!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욥기에서 전투는 42장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 전투는 마귀가 눈에 막대를 꽂힌 채 끝이 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은 ‘욥이 가진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를 저주할 것 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귀는

눈에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2장에서도 마귀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완벽주의자 이십니다. 그는 균형을 좋아하십니다. 한 쪽 눈에만 멍 들었을 때, 그것은 불균형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2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3절)

저는 여러분이 물고기라면, 그리고 한 번 낚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속도위반 벌금 고지서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일을 한 번 겪은 후엔 다음 번엔 속도를 줄이게 되겠죠. 만약 제가 천천히 운전 했는데도 속도위반 딱지를 받았다면, 저는 더 천천히 운전 할 것 입니다. 아마 그냥 걸어도 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속도위반 딱지를 받으면, 다음번에는 그 지점에서 천천히 운전을 할 것입니다. 여기 주목 해 주십시오, 그가 미끼를 물었고, 다음에 같은 곳에서 또 미끼를 물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3절) 그것이 정확하게 같은 미끼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마귀가 “흐음..어디서 많이 들 어본 소린데” 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 하시겠지요. 하지만, 하

나눔께서는 이에 다음을 더하십니다.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매”(3절 후반) 그러자 사탄은 대답하여 이르기를 … “에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틱씩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섯 살 짜리 어린아이같이 대답합니다.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4절) 이것이 그가 한 말입니다.

그가 무엇이라 말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5절) 여기서 사탄은 또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욕은 또 무엇을 겪게 됩니까?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부스럼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부스럼을 앓은 적이 없다면, 아주 좋은 성경적 교훈을 얻을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축복을 놓치신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 교훈을 얻을 기회는 잃으신 것이죠. 저는 언젠가 부스럼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병을 두 번 앓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미워했을 것 입니다. 제가 만약에 몸 두 군데를 동시에 부스럼을 앓았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미워했을 것 입니다. 욕은 이런 부스럼을 머리부터 발 끝까지 앓았던 것 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경에서 욕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욕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은 손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지도 않

왔고, 그를 격려해 줄 친구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도 없이 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에게 “지칠때에는 이 구절을 읽어봐, 머리가 아플때는 이 구절을 읽어봐, 장모님이나 시어머니가 방문할 때는 이 구절을 읽어봐, 삶에 치였을 때, 이 구절을 읽어봐” 라고 말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의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뽕! 이제 마귀가 나머지 한 쪽 눈에도 명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욥기는 끝났습니다! 도전은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가 당신을 저주할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사실,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욥기는 아마 2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글쎄, 욥이 나중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에 헤비급 챔피언과 도전자가 링 위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문자 그대로 서로에게 결정적 한 방을 먹인 후에 결국에 챔피언이 이긴다면, 그 챔피언이 집에가서 샤워하러 가는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해도 상관 없

는 것 아닙니까? 링에서 카운트다운이 끝난 후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도전자가 살고, 챔피언이 죽어도 승패는 바뀌지 않습니다. 챔피언이 승리를 한 다음 링 밖으로 떨어져서 목이 꺾여 죽어도 승패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욕이 무엇이라 말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마귀는 떠났습니다, 양쪽 눈에 멍이 들어, 그 멍을 없애려고 차가운 쇠고기를 붙이고 말이죠.

욥의 세 “친구”

|||||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욥의 친구들을 보내지 않았습니 다. 마귀는 욥의 친구들을 보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 예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을 내 보십시오. 여러분 집이 이미 불에 타고 있다면, 마귀는 누군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가 소위 여러분을 ‘바로잡기’ 위해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한마디씩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신거죠? 왜 당신의 집에 불을 냈나요? 혹시 잘못된 일이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사람들이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욥과 같이 황폐해 진 친구 집 맞은 편에 주차를 하고 7일 동안 친구가 자식들을 묻으며 10번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그냥 보

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각 식솔들과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십시오. 그의 부인은 그에게 고함을 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고,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난 채로 잣더미 가운데 앉아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 강단에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에게 행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길 맞은편에 차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 입니다. 차에서 그들은 “우리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교회의 누군가의 집에 불이 난다면, 여러분은 그 집 앞에 차를 세우게 될 것 입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불난 집 앞에 차를 대 놓고 그들과 같은 일을 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욥기에서 ‘미끼’, ‘미끼를 물었던 사탄’을 보았고, 이제 욥의 ‘어리석은 친구들’을 보게 될 것 입니다. 어떤 전투든, 싸움이든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더이상 못하겠어, 포기하겠어” 하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화도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몰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가 없는 것 입니다. 일본과 독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패배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을 패배시키지 못했습니다, 고로 그 곳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중동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1956년에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치려고 했을 때 미국이 나서서 그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1967년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쳤고, 미국은 개입하여 그들을 또 막았습니다. 1973년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다시 쳤고, 미국은 또 다시 개입하여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셨습니까?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서 미국인들은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은 1982년에 유대인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 베이루트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적이 항복을 해 오기 전까지 그들을 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 레바논 인질 위기사태: 1982-1992년 사이, 대부분 미국인들이나 서유럽인으로 구성된 21개국 출신의 104명의 인질들이 납치되었고, 최소 8명이 인질로 잡혀있던 중 사망하였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실 것 입니다. 그들은 욥이 “그래, 너희들이 맞다” 하고 말 할 때까지 욥을 말로 공격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는 것 입니다.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맹렬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것 입니다. 한 번이라도 싸움을 해보신 분이라면, 한 사람 이상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 인지 아실 것 입니다. 한 번에 두 사람을 상대할 수 있다면 그것도 대단

한 것 일 것 입니다. 욥은 지금 세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온 몸
에 머리부터 발 끝까지 부스럼을 앓고 있는 그가 말입니다. 욥은
아마도 낙심한 상태였을 것 입니다.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말했고, 그는 자신의 모든 자녀를 묻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욥에게 다가가, “너는 죄를 지은 것 같구나” 라고 말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욥은 그것이 100% 틀린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해도, “그래, 알았어. 이제 나를 혼자 좀 내버려 둬”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은 ‘합동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 4장과 5장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욥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닷이 이어받아 8장과 9장에서 욥에
게 질문을 던지고, 욥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발이
이어받고, 다시 엘리바스가 등장하여 15장에서 욥에게 공세를 이
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12장과 13장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보
여드리려고 합니다. 욥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을 보십시오. 구절 중간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
다.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13장 2절 후반에도 “내가 너희
보다 못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자 그
대로 그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봐, 나는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어!” 하고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저는 욥기에
서 가장 재미있는 대사는 그가 말했던, “나를 쳐다보라. 내가 거짓
말을 하면 너희에게 분명히 드러나느니라” (6:28) 라고 생각합니

다. 이 사람은 잣더미 한 가운데에서 부스럼을 앓으며, 자신에게 소리치는 아내에, 아이들은 다 죽었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빼앗겼으며, 이런 상황에서 그가 ‘내가 거짓말을 하면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것 보다 더 명백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욱기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세 친구들의 합동공격이 끝나고, 이들 중 한 명을 욱이 패배시켜 코너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빌닷이 25장까지 등장합니다. 2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5장은 점점 더 유머스러워 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빌닷에게는 세 번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 번째 공격에서 단 여섯 구절 이상 말을 떠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이 세 친구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친 욱을 합동해서 상대했다고 한다면, 지금쯤 그를 이기고도 남았어야 하는데, 빌닷은 욱을 고소할 죄목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욱은 모든 것에 있어 비난을 받았고, 아마 러크만 박사가 받은 공격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 입니다. 빌닷이 세 번째 공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여섯 구절 뿐 입니다.

이제 주목 해 주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6절에서 욱이 숨고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수요일 예배에서 기도제목을 말하려고 일어섰다가 다음날인 목요일에나 앉을 수 있을 분입니다. 저는 저의 교회 분들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저

는 그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제가 교회에 가서 바닥을 쓸거나 다른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수요일 저녁에 배 시간에 일어설 때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분들이) 정말로 그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지 다섯 살 난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 해 주세요.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말이죠...”라며 지난 5년 동안의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 놓을 때 말입니다! 어느날 정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녀가 “어찌구 저찌구... (숨을 쉬고), 또 어찌구 저찌구...”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는 숨은 쉬셨네!”하고 말할 뻔 했습니다.

26장 6절 끝에, 욥이 숨을 고릅니다. 그가 새 힘을 얻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방금 전까지 세 번의 공격을 당했고, 여섯 번 정도의 가벼운 잦을 날렸습니다. 이제 욥은 여섯 구절에 대해 눈폭풍과 같은 대답을 26절, 27절, 28절, 29절, 그리고 30절에서 날려 줍니다. 그는 한 구절 당 한 장의 대답을 줍니다. 진짜로 욥은 문자 그대로 회심의 한방을 날릴 힘을 얻어 그의 적수들을 항복시킵니다. 그들은 링 코너 밖으로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또다른 라운드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패배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아시겠습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욥기의 중심인물이 욥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32장에서 다시 보여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경배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은 이에 대해 우리의 권리와 의견을 내세웁니다. 침례교도인 우리들은 주차장에 어떤 크기의 바위를 놓아야 할지도 투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분담금을 할당할 때, 바위가 작은 것이라면 내가 낸 십일조로 일군 교회 예산을 더 많이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경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때,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엘리후는 32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그리고 37장은 통틀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선한 것들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랍과 그룹들이 모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하고 말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찬양하는 것처럼 잘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스랍이나 그룹이 지금 여기로 들어와 “거룩, 거룩, 거룩”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바닥에 엎드려 있을 것입니다. 그 모

숨에 압도되어서 말입니다. 그런 그들도 하나님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거 알아, 너희들은 내가 여기 온게 행운인 줄 알아. 나보다 더 큰 자는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발을 동동 구르며 서로에게 누가 그 사람을 끌고 나갈 것 인지 눈치를 줄 것입니다. 제 말은, 형제님들이 그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걸어들어오시며, “나는 정말로 위대하다 -나보다 더 큰자는 아무도 없도다”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그의 발에 입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자존감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 년 전, 어떤 사람이 “나는 모든 것에 뛰어난 자다” 라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복싱선수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새의 발톱처럼 굳어져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대로 말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뛰어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 역자 주: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한 말이다. 그는 2016년 6월 3일 사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하심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서시며, “엘리후, 잘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본을 보여주마”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리고나서 그는 뒤로 돌아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리하여 하나님께서는 38장, 39장, 그리고 40장과 41장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자신이 그 이야기를 풀어내십니다. 세상 그 누가 하나님께서 41장에서 하신 것 처럼 마귀를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누구도 내가 하는 것 처럼 마귀를 칠 수 없느니라.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나는 그를 새를 다루듯 할 수 있으며, 그가 눈이 세 개 였다면, 나는 그마저도 명들게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41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제까지 욕기를 살펴보며 ‘미끼’, ‘미끼를 물은 사탄’, 그리고 어리석은 ‘세 친구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리후에 대해 살펴보았고,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하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42장에서 이 이야기가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요의 인내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욥의 인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솔직히, 그런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는 사실 친구들에 대해 그리 참을성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그들에게 한 방을 먹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욥이 인내했던 세 가지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2장 1-3절에 욥의 첫 번째 인내에 대해 나오는데, 제가

믿기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내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는 “저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없이 말을 내뱉었군요” 하고 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주께서 하신 일은 제게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 알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내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완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살면서 하나님이 아직 일을 완수하시기 전에 그가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고 계신다고 말했던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머, 제가 너무 성급히 말을 했군요. 제가 생각없이 말했어요” 하고 뉘우친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묵고 있던 캠핑카에는 ‘공원 내 에어컨 사용금지’ 라는 팻말이 붙

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원 관리자가 캠핑카 공원에 묵는 사람들이 땀에 젖어있는 것을 좋아하는 과거 나치당원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 30분에 저와 아내는 선풍기를 켜었습니다. 그러나 푹, 푹, 푹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제 아내가 나갔습니다. 제가 나갔더라는 저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침 8시 30분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좋게 대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당신들은 내 핏말을 보지 못했군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네요.” 제 아내는 “선풍기에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에어컨인 것 같은데!” 그러자 제 아내는 “확인 해 보시겠어요? 저건 선풍이라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자, 상상을 해 봅시다.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가 노크를 했을 때 박차고 나아가, “**이봐 친구! 지금 뭐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내 아내에게 경솔히 말해?**” 쏘아붙입니다. 그리고나서 30분동안 그를 혼내주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제 아니고 저는 에어컨을 켜도 된다고 말하러 왔던 거예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읊이 한 말입니다. 읊은 “제가 성급히 판단했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살펴봅시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42장 4-6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은 하나님에 대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 이유를 목회자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목사님이 말을 경솔히 해서 화나가서 교회를 떠났어요” 하고 말하곤 합니다. 혹자는 “누구 누구 형제가 집사님로 선출되었는데, 나는 내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내 아이에게 닥치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겼다고 저것도 했어요” 하며 핑계를 대곤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화가 나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로 가득 차있고, 목사님에게도, 다른 성도 누구에게도 화가 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행하신 일에 화가 나서, “나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보여드리죠”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할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의 아들을 당신을 위해 죽게 하실만큼 사랑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고싶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인생을 되찾아,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처주는데 그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 중간에는 꼭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나기 직전에 철도 레일 위에는 소녀가 묶여있고, 하얀 모자를 쓴 남자는 악당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장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결국에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꼭 나쁜일이 먼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인내하십시오.

친구들에 대한 인내

|||||

이제 7절에서 욥은 그가 인내했던 다른 영역에 대해 보여줍니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음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몇번이나 ‘내 종 욥’을 언급하시는지 주목 해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 헌물을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내가 그로 인하여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8-9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욥에게 찾아가 그가 ‘내

가 잘못했어'라고 말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하지만, 너희들은 결코 너희들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제, 나는 너희들이 욥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틀렸어'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들이 수소 일곱마리, 숫양 일곱마리와 함께 욥에게 나타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욥은 잣더미 위에 앉아, "아, 저들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군. 다른 무언가를 생각 해 냈을거야. '주님의 검', 혹은 '성경적 탐구자'* , 혹은 어떤 것을 통해 나쁘게 이야기할 무언가를 찾았겠지" 하고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 역자 주: 주님의 검 (Sword of the Lord)과 성경적 탐구 (Biblical Inquirer)는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기독교 신문임.

그러는 중, 세 친구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기..그게 말이지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 왔었던 거 알지? 우리는 말이지,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러 왔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한 꺾 코너로 몰아 놓은 다음, '내가 화나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하고 말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화 난 것이 아니라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의 친구들은 “우리가 저기...그게...” 하고 말하며 땀을 흘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틀렸다고 말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옴, 그게 말이지…우리가 틀렸어,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이 선물들을 가져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받으시려고 해서 네가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네가 드리는 것만 받으시겠다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옴이라면 이때 옴으로 살기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옴기의 옴처럼 살기 정말 싫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옴이 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세 친구들을 두고 보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도 안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만 받으려고 하시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그 친구들이 잘보이려고 굶신거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얼굴에 한 방이라고 먹이고, 말로도 퍼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옴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아, 이제 사과하는구나!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간섭 안하셨으면 안했을거 아냐?” 하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옴은 “알았어, 애들아” 하고 말하며 친구들에 대해 인내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인내

옴은 또 하나의 영역에서 인내했습니다. 11-13절을 살펴보십시오. “그때에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빵을 먹고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고 또 각 사람이 돈 한 개와 각 사람이 금귀고리 한 개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옴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 만 사천 마리와 낙타 육천 마리와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 마리를 소유하였더라. 또 그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더라.”

옴기에서 시간에 관한 요소는 언제나 의문을 낳아왔습니다. 저는, “한 해, 두 해, 혹은 세 해 동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한 달 이상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매우 놀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옴기의 사건들이 최소한 7일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길 반대편에서 옴을 7일 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살펴보신다면, 그 이후로는 단지 대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격식있는 토론같은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옴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옴이 “자, 3주 후에 돌아오게, 그러면 내가 답하겠네” 하면 그들이 2주 후에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형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옴기에 나오는 대화는 3시간 혹은 4시간에 걸쳐 진

행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을만 합니다. 대화가 책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아마도 시간상으로는 가장 짧은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욕기의 일련의 일들이 30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와 같습니다.

1. 사건은 최소 7일 이상 걸렸습니다.
2.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기도는 3주였고, 다니엘서에서 그 기도가 21일동안 지체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도가 방해받아 지연된 것 중 가장 긴 것이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3. 또, 만약에 여러분에게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집에 있는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내 남편이 죽었어” 하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남자 형제가 전화해서 그의 남편이 죽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형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내 아내가 죽었어” 라고 말한다면,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공상으로 달려가, 비행기를 타고 그리로 급히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두 어 시간 안에 도착할거야”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도, 전화기도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마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에 2주나 1주 반 정도 가 걸리고, 회신하는 데 1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마자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주 정도가 지나서야 소식이 전해졌고, 실제로 도착하는 데에 1주에서 2주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의 사건들은 아마 30일 정도에 걸쳐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돌려 주셨으며, 16-17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이 일 뒤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자기 아들과 손자들을 사 대까지 보았고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욥은 시간에 대해 인내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며,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5초 이내에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의 질문에 5년 동안 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은 앉아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종종 욥의 말년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그가 140년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140살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욥이 일련의 사건을 겪었을 때 몇 살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사건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려보건데, 욥은 그 사건 후 120년 후 쯤에, 무릎에 증손자의 증손자 쯤 되는 자손을 앉혀 놓고, 베란다에 앉아서, 그 아이가 “할아버지 아주 옛날에, 할아버지 자녀가 다 죽고, 할아버지는 엄청 아프셨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에게 엄청 화가 나있고, 할아버지 친구들은 할아버지를 미워했고, 가진 모든 것을 잃으신 적이 있었다면서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고 물을 때 아마 다음과 같이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맞아, 아가,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정말로 그런일이 있었다.”

“그게 할아버지 인생 중 가장 최악의 일 이었겠네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내 무릎 관절염이 내 인생의 최악의 사건이란다. 정말 아프거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16년 전에 저는 목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일생을 바꾸어 놓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수술 후에 여러분이 죽거나, 마비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는 목이 아니라 왼쪽 무릎이 더 아픕니다.

우리가 멍이 들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낫습니까? 루크라는 아이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루크는 집어 뜯으면 상처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모기에 물린 자리를 집어 뜯습니다. “집어 뜯어버렸어” 하고 말하는 그 아이가 곁을 때를 보면 모기 물린 자국이 한가득 입니다. 네이단이라는 아이는 걸어다니는 거즈 반창고 같습니다. 한 쪽 무릎에, 하나는 팔에, 그리고 다른 한 곳에 반창고가 붙어있습니다. 그렇게 반창고를 붙여도 계속 잡아 뜯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이면 없어졌을 상처가 여섯 달 후에 보아도 아직도 염증이 있을 것입니

다. 그리고 결국에 치유가 되어도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낙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남녀를 불문하고 엉엉 울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상처를 집어 뜹습니다. 평생 상처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15년 후에도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실화입니다. 한 전도자(Evangelist)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한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님들 중 한 분을 보러갈 것입니다. 그분은 여든 한 살이시고, 교회에 14년 동안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 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도망갔거나, 아니면 그의 아이가 죽었나 하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목사님이 답했습니다,

“그게, 믿지 못 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피아노를 샀어요.”

이 침례교회에서, 그들이 피아노를 예배당 어느 쪽에 놓아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이 쪽이, 아니 저쪽이 좋겠어요” 하고 말 한 후에 예배당 한쪽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여든 한 살 먹은 형제가 원하는 반대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나가 15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자그마치 15년 동안입니다!

이제, 교인들이 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그가 현관 앞으로 나옵니다. 형제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그의 아내가 뒤따라옵니다. 그녀가 당혹 해 하는 동안 그 형제가 전도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15년동안 가지 않았소.”

그러자 전도자가, “아 그렇습니까?” 하고 답합니다.

그 형제는, “그렇소, 왜 가지 않았는지 아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피아노를 샀기 때문이오. 그리고, 그들이 내가 말하는 방향으로 피아노를 예배당에 놓지 않았소.”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아내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쪽이 예배당 어느 쪽이었지?”

이 형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상처의 딱지를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결국에 상처가 너무 깊어져서 왜 상처가 생겼는지 이유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깁스를 한 채로, 사람들이 우리가 아픈 것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통곡하고 슬픔에 잠기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들게 하시고, 그 상처가 치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히유되는 것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상처를 집어 뜯어 더 큰 상처를 만들어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론

|||||||

하나님께서서는 욥기의 중심 인물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마귀를 쳐서 제압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께서 자신이 지나치게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겪게 하신 일을 겪게 될까봐,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께 올라가 같은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던 것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눈에 막대기를 쏘으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선택된 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선택되는 영예를 누린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계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

아버지, 이 성경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서 욥기를 포함한 성경의 중심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제가 마치 마귀를 상대할 능력이 있는 것 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욕이 한 것 처럼 할 수 있을지도 확신 없습니다. 아버지, 제 삶에 여러가지 일을 겪는 동안 제가 말아야 할 말들을 했고, 그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계신 분들께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분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당신께서 가진 권능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일대일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된, 당신께서 이미 녹다운 시켜서 당신의 뜻 안에서 손 안에 다루시는 존재가 사탄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과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상처주는 친구들을 인내하게 도와주소서, 그들이 낙망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도 그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대해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의 날들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침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침송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75	로마서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 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80	사무엘 김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 5000원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 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

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롬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군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군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 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 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 드립니다.



지은이

Dr. Samuel C. Gipp

사무엘 C. 킵 박사는 목사, 복음전도자, 성경 교사,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이며 강연회 강사입니다.

그는 많은 양의 정보를 단순한 형 태로 정리하여 제시하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그의 강력하면서도 유머가 넘치는 설교 스타일로 인해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와 성경강연회 연사로 그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킵 형제는 킵제임스성경의 옹호자로 유명하며 TV프로그램을 통해
킵제임스성경을 공격하는 학자들과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는 지금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www.samgipp.com

www.daystarpublishing.com